장학생들과 한 무대에

24일, 김흥국장학재단 10주년 축하공연

축구, 해병대 등으로 더 유명한 불자가수 김흥국(사진)이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 설립 10주년과 호랑나비 탄생 20주년을 맞아 10월 24일 오전 10시 조계사 한국불교문화기념관에서 기념 축하공연 행사를 갖는다.

김흥국은 이번 10주년 기념공연에 앞서 "2000년도 낙산사 홍련암을 바라보며 인간방생을 발원했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10주년을 맞아 하는 공연이니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에는 장학재단설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 2부는 호랑나비 탄생 20주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그 동안 김흥국씨가 장학금을 전달했던 학생들도 같이 참석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김흥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들은 약 90여 명으로 김흥국씨는 "여태껏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그 학생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항상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는 가수 김흥국은 "지금까지 장학 사업을 이어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많은 보살님들과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학재단이 잘 되면 아들 번칠이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그 특유의 웃음으로 화답했다. (02)745-0306, 국민 803-21-0319328(예금주:김흥국장학재단)

이은정 기자

쇳불 떨궈 공의 묘리 새기니

이종섭 작가 27일까지 '반야심경' 전시… 조계사 경내에 설치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글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일 강하다는 쇠에 변하지 않는 쇳물로 그 글을 새기고 싶었습니다."

미술가 이종섭은 2년여 간 절실한 마음으로 작업한 260자 철판에 가로 14m, 세로 7m의 반야심경을 조계종 조계사 경내에 설치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루 2~3자 정도씩 철판에 용접으로 글을 쓰며 작업한 그는 "용접이 시작되면 끓는 쇳물 1㎝정도만 보여, 나중에는 그 끓는 쇳물에 눈이 매달리다 보니 눈뜨고 눈감은 듯 작업했다"고 말한다.

긴 호흡과 인내가 필요했던 이 작가의 작업은 현재의 삶속에서 인내하고 버텨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아침, 저녁으로 부식이 진행돼 색깔이 변하는 철판은 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의 자유로움과 그 사이의 많은 생각과 갈등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는 "단지 특정 종교를 주제로 작업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 작가의 바람을 담아 이번 전시는 특별히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시형식을 하기위해 종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조계사를 선택했다. 이종섭 작가는 앞으로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주기도문, 국민교육헌장을 시리즈로 작업해 삶과 현실,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반야심경 조형물은 12월 초까지 조계사에 설치되며, 10월 2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지난날의 기억은 그의 불꽃같은 열정이 담긴 작품에 태워버리고, 녹슬어 가는 철판에서 <반야심경>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감상해 보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조계사 경내에 설치된 미술가 이종섭의 '반야심경'.

10년 만에 다시 무대로

'뜰 앞의 잣나무' 극작가 원담 스님

이번 완자무늬 극단이 공연하는 '뜰 앞의 잣나무'를 극작한 원담 스님.

"극단에서 이번에 이 연극을 올리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작품은 더욱이 종교적 색채가 짙어 결정하기에 더 어려웠을 겁니다."

1996년 대학로에 최초로 스님이 쓴 희곡이 공연됐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극단완자무늬는 원담 스님(수국사 주지) '뜰 앞의 잣나무'를 심우도 시리즈의 연작 중 하나로 재공연한다.

원담 스님은 이번에 다시 자신의 작품이 공연되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고, 마냥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 말하는 스님은 "불교에 몸담은 후부터 부처님께 받은 선물처럼 자연적으로 작품에 대한 영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스님은 현재 '뜰 앞의 잣나무' '지대방'을 연극무대에 올렸고, 내년에는 '부엉이는 황혼에 비로소 날개를 편다'를 재구성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10월 14일 시작된 이번 연극은 25일까지 대학로극장에서 공연된다. "너무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많이 창조해야 한다"는 스님의 바람처럼,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길 기대한다. (070)7519-3600

이은정 기자

화쟁과 깨달음 수놓아

東大 이점원 교수 31번째 조각전 성료

이점원 교수 31번째 조각전에 출품된 작품.

해 뜰 무렵 나뭇잎에 가려진 억새풀 위의 이슬방울처럼 마른 곳과 마르지 않은 곳의 미묘한 감성을 표현한 동국대 미술학부 이점원 교수의 31번째 조각전이 10월 20일 막을 내렸다. 몇 년째 꽃과 여자를 작품의 소재로 다루며 화쟁과, 깨달음의 사상을 보여준 이점원 교수의 이번 전시회는 관객들이 직접 작품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관객의 참여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미술사상가이자 철학박사인 김영재씨는 "이점원 교수의 작품은 우주 속에서 현란하게 빛나는 현상계는 칠흑 같은 옻칠 속의 화사한 자개로, 만유의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작은 자개 조각들은 끊음질 기법으로 수놓은 것은, 마치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사상이 구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작품을 통해 깨달음의 끝을 보여주며, 매번 불가능할 것 같은 작품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이점원 교수의 다음 전시가 또 다시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한·중·북 작가들 자선전시회

북녘어린이 돕기… 22일까지 불일미술관

한국, 중국, 북한 작가들의 미술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북녘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선전시회는 한국, 중국, 북한 작가들의 작품 총200여 점 중 108점을 선별해 전시된다. 세계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황칠공예 명인 구영국씨의 작품 30여 점도 함께 전시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술협회는 1980년 설립돼 지금까지 많은 전시회와 작품 활동을 국내외 구분하지 않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세계미술협회 유재기 대표는 "북한 어린이도 미래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 참가해 주셨으며, 이번 전시의 판매수익금은 전액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녘어린이돕기 자선전시회 한 · 중 · 북 그림 108초대전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16일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22일까지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네팔 만다라 오묘한 세계에 빠져보자

네팔 만다라 순회 특별전 11월 1일까지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열려

이번 네팔 만다라 순회전에 전시되는 '금강계 만다라'.

네팔의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네팔 만다라 순회 특별전이 10월 21일~11월 1일 총지사 2층 원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총지종 통리원과 밀교연구소, (주)한네인투어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에는 금강계 · 태장계 만다라 10여 점, 네팔계 칼라차크라 만다라 20여 점 등을 포함한 약 4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9월 조계사 나무 갤러리를 시작으로 열린 특별전시회는 한국과 네팔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네팔 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네팔 낙후 지역의 난민촌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특별전의 개막법회가 21일 오후 3시 총지사 3층 서원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02)418-5252

이은정 기자

밀교경전을 근거로 그려진 '태장계 만다라'.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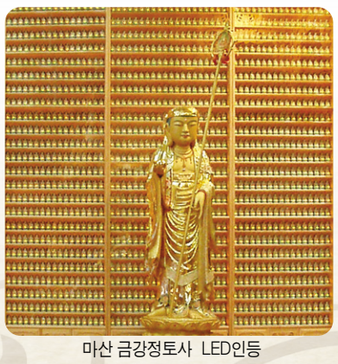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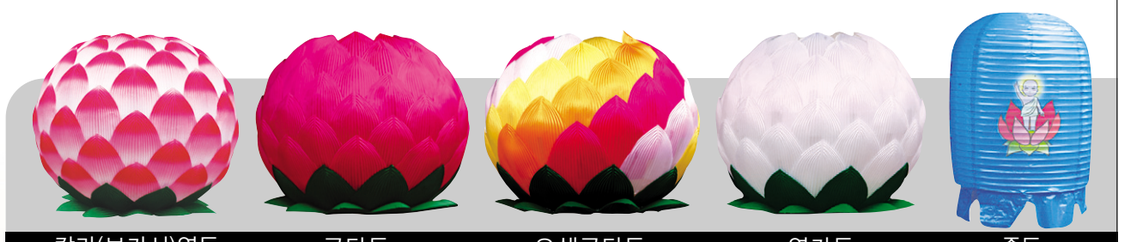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